

	보도자료 (2019. 2. 20 수) 국회미래연구원 http://www.nafi.re.kr (02) 786-2199	 국회미래연구원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	---	---

국회미래연구원 · 연세대 미래정부연구센터 공동세미나 개최

- 미래사회와 미래정부: 도전과 과제 -

- 요약 -

연세대학교 미래정부연구센터(센터장, 문명재)와 국회미래연구원(원장,朴進)은 2월 21일(목) 오전 10:00부터 11:45까지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장에서 ‘미래사회와 미래정부: 도전과 과제’라는 주제로 공동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공동세미나에서는 미래 행정환경 대응을 위해 초지능성과 민첩성 등을 갖춘 신뢰받는 미래 정부를 지향하고자 수행된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미래사회와 미래정부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자 개최되었다.

연세대 미래정부연구센터 및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진의 발표로 "미래사회와 정부의 역할과 기능: 예견적 정부 모형을 중심으로", "정부신뢰와 미래 정부 혁신 방향", "정부의 특성이 국민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의 주제가 소개되고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토론이 이어졌다(별첨 참고).

국회미래연구원은 이번 연구 등을 바탕으로 올해 정부역할의 발전방향을 설계한 후 내년에는 이를 반영하는 정부조직개편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끝>

작성자 :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 허종호
(02-786-3977, joheo@nafi.re.kr)

※ 2019년 2월 22일(금) 조간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미래 사회에서 정부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정부 신뢰를 높이기 위한 요소와 혁신 방안은 무엇일까?

연세대 미래정부연구센터(센터장, 문명재)와 국회미래연구원(원장,朴進)은 2월 21일(목) 오전 10:00부터 11:45까지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장에서 ‘미래사회와 미래정부: 도전과 과제’라는 주제로 공동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공동세미나에서는 연세대 미래정부연구센터 및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진이 미래의 정부 성격에 대한 예측, 정부 신뢰 제고를 위한 혁신 방향, 국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정부 특성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미래연구원 연구진이 토론하였다.

[표] 공동세미나 발표주제 및 발표자와 토론자

발표 주제	발표자
"미래사회와 정부의 역할과 기능: 예견적 정부 모형을 중심으로"	문명재 교수, 김정숙 박사, 최선미 박사 (미래정부연구센터)
"정부신뢰와 미래 정부 혁신 방향"	나태준 교수, 하희송 박사, 박일주 박사 (미래정부연구센터)
"정부의 특성이 국민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	이채정 박사 (국회미래연구원)
토론: 박성원(국회미래연구원), 유재광(국회미래연구원), 조윤직(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미래사회와 정부의 역할과 기능: 예견적 정부 모형을 중심으로”, 문명재 교수, 김정숙 박사, 최선미 박사 (미래정부연구센터)

미래에는 복잡성, 불안정성, 불확실성, 상호관련성 등의 속성을 지닌 국내·외 환경변화에 따라 다양하고 복잡한 정책문제나 행정수요가 초래될 것으로 예측하

고 있다. 이러한 미래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대안으로 미래예견에 토대를 둔 국정운영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미래예견적 정부 혁신이 요구되고 있다. 미래예견적 국정관리(Anticipatory Governance)란 위험을 줄이기 위해 통찰(Foresight)을 이용하는 방법과 사건 초기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방법을 제공하는 제도, 규칙 및 규범 체계를 의미한다. 미래 예견적 국정관리는 통찰과 정책의 통합, 네트워크 거버넌스, 환류 시스템을 그 핵심요소로 한다. 이 예견적 정부는 업무에 지능형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다양하고 복잡한 환경에서 유의미한 패턴을 발견하고 더 정확한 예측능력으로 효과적인 의사결정 지원이 가능하고 사기 거래 예측, 전염병 등 질병의 추적·통제·예방, 도시 자원의 효율적 분배 및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했다. 그 사례로 바이오데이터를 통한 건강관리, 자율 운송 수단과 ICT의 융합, 스마트시티 등장, IoT 기술을 활용한 사회간접자본(SOC) 시설물 무인·원격 모니터링 체계 등을 들었다. 예견적 정부로 가기 위한 혁신 방안으로는 데이터 기반의 미래예견 시스템 구축 및 데이터 기반 정책결정과 집행 및 평가가 요구되며 전담조직 개설과 공직리더십 강화 등을 제안하였다.

"정부신뢰와 미래 정부 혁신 방향", 나태준 교수, 하희송 박사, 박일주 박사 (미래정부연구센터)

본 연구발표에서는 정부 신뢰의 개념을 간단히 정리하고 한국인의 정부 신뢰 및 미래 정부에 대한 기대 관련 현황 파악을 위해 2018년 만 20세 이상 전국 성인남녀 천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두 가지 설문조사 결과를 소개한다. 우선 <2018년 초변화사회의 신뢰받는 미래정부 통계조사>에서 정부신뢰에 대해 세 가지로 질문한 결과 '나는 정부를 신뢰한다'가 5점 만점 중 평균 3.09점으로 가장 높고, 이어서 '정부의 의사결정과정을 면밀히 알지 못할지라도 정부가 하는 결정은 옳다고 받아들인다'(2.69점), '정부의 정책 때문에 내가 손해를 입어도 나는 그것을 기꺼이 감수할 용의가 있다'(2.59점)의 순이었다. 이를 통해 전반적으

로 국민들의 정부 신뢰도가 보통 수준 혹은 그 이하인 것을 알 수 있다. 아울러 해당 조사에서는 정부 업무성과 관련 정부지출의 효율성 및 정책목표 달성의 효과성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도 질문하였다. 정부의 업무 성과와 관련한 평가에서는 ‘정부는 의도한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한다’가 5점 만점에 평균 2.76점, ‘정부는 예산을 지출한 이상의 업무성과를 낸다’(2.51점), ‘정부는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지 않고 사용한다’(2.35점) 등이어서 전반적으로 정부의 업무 성과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가 보통 이하의 수준에 머무는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국민들이 구체적으로 어느 분야에서 정부의 역할을 기대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설문한 결과 정부가 지출을 우선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야 1순위로 가장 많이 선택된 분야는 사회복지(21.8%)였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17.3%), 환경보호(14.0%), 경제사업(11.4%), 국방(11.3%), 보건(7.6%), 교육(7.0%),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6.9%), 일반 공공행정(2.2%), 오락문화종교(0.5%) 순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미래정부연구센터 <2018년 정부의 질과 정부신뢰 통계조사>에서는 정부의 인공지능 활용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측정하였는데, ‘인공지능을 활용한다면 공무원 규모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10점 만점 중 평균 6.08점)로 평균 점수가 가장 높고, 다음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한다면 구청, 동사무소 업무 등 대부분의 대민행정서비스를 더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6.07점), ‘인공지능을 활용한다면 행정 효율성이 높아져 비용이 절감될 것이다’(6.00점)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인공지능을 활용한다면 정부의 정책결정을 더 신뢰할 수 있을 것이다’(5.30점), ‘인공지능을 활용한다면 정부의 정책목표 달성에 효과적일 것이다’(5.45점), ‘인공지능을 활용한다면 정부의 형평성이 높아질 것이다’(5.46점)는 동의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인공지능이 공무원의 역할을 대체하여 행정 및 경제적 효율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인식하는 국민들이 상대적으로 많음을 추론할 수 있다.

설문 조사를 통해 정부의 질, 복지 및 규제 태도, 정부신뢰, 정부역량, 정부 혁신, 삶의 질, 행복감 등 국민 인식 현황을 파악하고 초변화 사회 관련 인식, 미래사회 및 미래정부의 상에 관한 인식 현황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향후 활용가능

성이 높다.

“정부의 특성이 국민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 이채정 박사 (국회미래연구원)

국회미래연구원 이채정 박사는 OECD 30개국의 2012~2017년까지 주요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정부의 특성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 결과를 발표한다. 정부 효과성이 높고, 규모가 작을수록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정부의 질과 규모가 일정 수준 담보된 상황에서는 각종 사회정책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공공재를 생산하는 것보다는 시장과 치안이 안정되어 있을 때 국민 삶의 질이 개선될 가능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사회적 안정 없이는 사회정책의 확대가 당초 목표대로 효과를 발휘하여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없음을 시사한다.

작성자 :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 허종호
(02-786-3977, joheo@nafi.re.kr)

국회미래연구원-미래정부연구센터 공동세미나

미래사회와 미래정부: 도전과 과제

일시 2019년 2월 21일(목) 10:00~11:45

장소 국회의원회관 2층 제 3 간담회의장

주최 국회미래연구원, 연세대 미래정부연구센터

프로그램

10:00 ~ 10:20 개회식

개회사: 문명재 (연세대 미래정부연구센터장)

환영사: 박 진 (국회미래연구원장)

축 사: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송언석 의원(자유한국당)

10:20 ~ 11:45 주제발표 및 토론 좌장 윤경준(한성대 행정학과 교수)

발제 1 문명재 교수, 김정숙 박사, 최선미 박사 (연세대 미래정부연구센터)
“미래사회와 정부의 역할과 기능: 예견적 정부 모형을 중심으로”

발제 2 나태준 교수, 하희송 박사, 박일주 박사 (연세대 미래정부연구센터)
“정부신뢰와 미래 정부 혁신 방향”

발제 3 이채정 박사 (국회미래연구원)
“정부 특성이 국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분석”

종합토론: 박성원(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
유재광(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
조윤직(연세대 행정학과 교수)